

시대를 아파하지 않고 세속에 분노하지 않으면

詩가 아니다

학정 이돈홍 고희 기념전 28일~2월 3일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전·예·해·행·초서 71점
그림 12점도 첫 선
51년 필묵여정 고스란히



커야해요. 전 서예인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동국진체를 넘어서는 글씨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老) 서예가는 오늘도 먹을 간다. 붓과 베풀을 친구, 연인, 가족으로 삼아온 지 약 50년째. 붓을 든 손은 여전히 힘이 넘친다.

한국 서예계를 대표하는 학정(鶴亭) 이돈홍(70) 선생이 51년 필묵여정(筆墨餘情)을 고스란히 담은 전시를 선보인다. 학정 선생은 오는 28일부터 2월3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고희전을 연다.

“처음엔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칠순을 쟁긴다고. 제자들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자취를 남기고 가야한다’고 등 떠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준비하게 됐어요. 전 커다란 예술적 성취를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선생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자들이 전시회를 열어주니 깊이 감사하죠.”

이번 전시는 제자들의 모임인 (사)학정연우회 회원 12명이 ‘고희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집 발간 등을 하며 마련했다.

그는 고희전 주제를 ‘신동국진체(新東國眞體)’를 꼽으며’로 잡았다.

동국진체는 중국을 모방하지 않은, 자유분방한 해학과 여유가 담긴 우리나라 전통 서법(書法)이다. 성호 이익의 형인 옥동 이서(1662~1723)로부터 시작돼 해남 출신 공재 윤두서(1669~1715)로 이어지며 호남을 중심으로 뿌리를 내렸다고 알려졌다.

일찍이 학정 선생은 동국진체의 계보를 이은 원교 이광사와 추사 김정희를 계승하면서 ‘학정체’라는 독자적인 서체를 이뤘다. 그가 거론하는 ‘신동국진체’가 가진 무게감이 다른 이유다.

“동국진체는 남도 지방에서 조선조 말까지 유행했던 고유 글씨체예요. 그런데 일본이 들어오면서 당시 우리나라 교육을 ‘서당식’, ‘도제식’이라 폄하하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일본 등과 서예교류를 활발히 하는 상황에서 우리것부터 먼저 정립시

이번 전시에서 그는 그동안 써왔던 전·예·해·행·초서 71점을 비롯해 그림 12점도 처음 선보인다. 그림들은 제주도, 완도 청산도를 비롯해 추상화까지 다양한 소재를 표현했다. 학정 선생은 이를 가리켜 ‘몽화(夢畵)’라고 설명했다.

“글씨를 쓰다가 될 때 술 한잔하고 몽롱한 기분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꿈 ‘몽’자를 붙였죠. 손이나 나이프로 아크릴물감을 문혀 기본 내키는 대로 그렸어요.”(웃음)

제자들은 이번 전시회 제목을 ‘濶恭自虛五十年 夢筆生花(은공자허오십년 몽필생화)’로 지었다. 관자(管子)의 말에서 따온 ‘은공자허’는 온화하고 공손하고 스스로 겸허해야 한다는 뜻이다. 1975년 학정서예연구원을 설립하면서 학정 선생이 원훈으로 삼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친 말이다. ‘몽필생화’는 ‘꿈 속에서도 붓이 꽃을 피우다’는 의미로, 학정의 서예 인생을 나타낸다.

전시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비시(非詩)’를 꼽았다. 정약용은 저서 ‘여유당전서’에서 ‘입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다.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을 통분해 하지 않은 것은 시가 아니다’고 세태를 풍자했다. 학정 선생은 현 시대도 똑같다고 말한다. 시에는 ‘권선징악’이 담겨야한다는 생각이다. 예술활동을 단순히 시각적 유희로 삼는 사람들에게 던진 메시지다.

“서예를 포함해 모든 예술인들은 다산 선생처럼 사회적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것을 지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하죠. 서예가 점차 침체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시가 새로운 기풍이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 062-222-415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학정 이돈홍 선생이 28일 광주 유·스퀘어 금호갤러리에서 열리는 고희기념전에 출품한 ‘비시’. 시에는 시대 비판정신이 담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돈홍 선생이 이번 고희전에서 처음 선보이는 손으로 그린 유화작품 ‘하산’.



마세나 작 ‘빨래줄에선’

‘내 고향 이 땅에서 살으리랏다’

다문화 사진전, 내달 13일까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나뭇잎 속에 숨어 있는 작은 꽃들이 이었어요. 엄마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낙엽에 가려진 꽃들처럼 언젠가는 숨어 있는 희망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어요.”

한국에 온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국말이 서툰 필리핀 이주여성 마세나씨의 중학생 아들이 자신이 찍은 사진 작품 ‘낙엽 속에 숨어 있는 작은 꽃’에 대한 설명이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가 1층 미디어갤러리 ‘창’에서 ‘내 고향 이 땅에서 살으리랏다’ 사진

전을 2월13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10~11월 영암지역 다문화 가정 사진미디어교육 수강생들이 찍은 작품 20점을 선보인다. 필리핀 이주 여성들과 자녀들, 이웃 주민들이 함께 촬영한 사진들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주여성들이 이 땅을 고향으로 삼고 뿌리를 내리는 과정과 다문화자녀들이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등을 사진을 통해 진솔하게 들을 수 있다. 문의 062-650-0337.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예술광주’ 가을·겨울호-공간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이 발간하는 ‘예술광주’ 가을·겨울호가 나왔다.

이번호 기획 ‘공간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에서는 광주 구도심 카페들을 살펴봤다. ‘골목에 바꾼 카페들’을 주제로 주홍 화가가 ‘샘이 깊은 물’, ‘갤러리바 0518’, ‘도글도글’, ‘맥거핀’ 등을 다뤘다. 또 건축사 정광민은 기획2 ‘추억 속의 집이 되돌아 오다’에서 무등산 무송원(無松院)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야기가 있는 사진’ 코너에는 사진작가 강경숙씨가 네팔에서 만날 사람들을 렌즈에 담은 ‘나마스테2-삶과 죽음의 변주, With Nepal!’이 실렸다.

이번호 ‘아트&아티스트’는 고근호, 김기수, 김남기, 김재호, 류재웅, 문정호, 박유자, 신병식, 양종세, 최미애가 주인공이다. 작가 10명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그밖에 ‘창작글방’에는 정숙인 시인의 비평 ‘시간, 그 풍경 속으로’와 김인영씨의 수필 ‘컵에 담긴 햇빛’이 실렸고, 인문학논단에서는 조수웅·리일천이 ‘틀리츠의 개념들’을 소개한다. 문의 062-528-92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강희진 두 번째 시집 ‘반하다, 훌쩍’ 펴내

강희진 시인이 두 번째 시집 ‘반하다, 훌쩍’ (장동)을 펴냈다.

그동안 서정의 영토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넓혀왔던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개성적인 시세계를 펼쳐 보인다. 주목받지 못한 사람과 사물들에 건네는 ‘사랑’은 시인이 추구하는 지향점과 다르지 않다.

모두 70여 편의 작품들은 파편화된 존재들의 상처를 위무하고 존재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둔다. 깊어진 서정 만큼이나 각각의 시들이 주는 울림은 만만치 않다. 시적화자는 내밀하게 드러워진 존재의 고통

을 ‘사랑’의 감각으로 위무하고 재현한다. 생의 고통과 존재의 아픔을 위무하고 미학적으로 이미지화하는 방식은 눈물 겹도록 아름답고 애잔하다.

한편 강 시인은 광주대 문예창작과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2004년 ‘문학사상’ 신인상을 통해 등단했다. 시집 ‘일요일의 우편배달부’와 인문서 ‘아무다리야의 아리랑’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